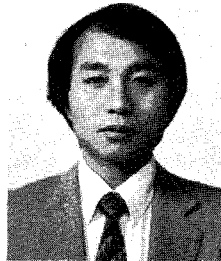


# 농업은 적정규모로 발전되어야 하며 농축산물의 수입은 억제되어야 한다



(현대사료<주>)

김 태 우

##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한국 농촌은 정치·경제·사회·문화면의 총체적 집적장소로 바뀌었으며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자식에게는 더 이상 농사를 짓게 하지 않으려 하며 당장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농민의 태반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미 수많은 청장년들이 농촌을 떠나고 노령화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농민은 현재의 열악한 조건을 넘어서려 하나 되지 않고, 도시의 소비문화속에 매몰되어 자신의 주체를 확립하지 못한 채 함께 헉헉거리고 있

다. 타락한 性文化와 가부장적 전제유산이 함께 공존하며 관념적으로는 충효의 전통논리가 명분으로 제기되며 고대로부터 집단적 사고를 완전히 탈각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상품사회의 개체적 이익에 쫓겨 약육강식의 논리가 소유 경지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특용작물의 가격 폭락과 생산비에 미달되는 채소류의 농장放棄,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축산물 가격 파동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도 높다.

농촌에 살고 있는 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후진성을 감수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들의 운명을 영구히 그런 것인 양 규정하고자 하는 도시의 횡포와 이에 대한 숙명적 체념이 오늘의 농촌을 뒤덮고 있다. 과연 농민은 숙명적으로 중노동을 하면서도 늘 원가 미달의 공박 판매로 곤궁에 쪼들리면서도 인심 후하고 순박하다는 牧歌의 이고 허구적인 예찬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 2. 농업과 농민

농업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식생활과 공업의 원료를 제공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산업이다. 농업

이 제대로 발전하고 서지 않는 한 그 나라나 집단의 생존은 보장받기가 매우 힘들다. 농업의 건실한 발전 위에 비로서 공업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으며 공업이 발전해야 농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얻게 될 것이다.

총체적 의미에 있어서 농업의 발전이란 농업의 생산력의 향상이며 이러한 생산력의 향상이 기후나 자연의 혜택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인위적인 시설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은 또한 역사발전의 원천적인 힘이다.

홍수나 한발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천의 제방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어 농약으로 극복하며 열악한 땅이나 호미는 석기나 나무에서 철로 바뀌고 또한 고도의 능력을 내는 기계도 대치되었고 수확이 적은 품종은 보다 나은 종자를 실험실에서 만들어 보급시켜서 수확을 증진시켜 왔다.

축산의 경우도 필요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 고기를 보다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고기질이 연하고 빨리 크는 닭을 골라서 새로운 교배에 의해 사육시키고 있고 소도 그냥 소가 아닌 젖이 보다 많이 나오는 우량품종으로 자꾸만 대치 발전시키고 있다. 이처럼 생산력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자연의 혜택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노력

이며 이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구조이다.

우리는 농민을 이해함에 있어서 감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은 도시나 다른 세계와 완전히 괴리된 채 자연을 벗삼아 사는 은둔주의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얽혀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사는 구체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그들이 농업을 영위하는 목적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와 생활의 필요에서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경로는 생산된 농축산물을 시장에 내어 팔고 그 대금으로 가족의 필요물자와 재생산에 필요한 생산 자재를 사고 기타 생활자금으로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도시에서 공장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의도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민에게도 농업노동의 일차적인 목적은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는데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을 때 그들은 농업의 발전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로 농업은 정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의 발전이란 이윤동기 이외에 달리 없는 것이다.

### 3. 오늘의 농업 현황

농업은 농업독자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경제 속에서 다른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으며 따라서 농업의 현황에 대한 인식도 총체적인 산업구조 속에서의 상대적인 입장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또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밝혀지는 상대적인 位相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이며 바로 이 점이 농업의 문제와 모순을 재는 자가 되는 것이다.

농수산업과 공업의 생산력이 국제사회 속에서 한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바로미터이며 경제발전의 척도인 것이다. 농업과 공업은 상호 생산물과 원료를 교환하여 발전하며 이러한 교환과정에서 다른 제세력이 개입하기 마련이며 힘이 강 한쪽에 유리한 조건 속에서 진행되기 마련이므로 농민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이것이 오늘의 농업문제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몇가지 오늘날의 농업의 모순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오늘의 농촌은 노동력 없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압력 하에서 자신의 생존에 부족한 토지소유 즉 소농과 고용의 소작료를 내는 소작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농으로는 적극적인 생산력의 발전이 어렵다.

둘째,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고도의 생산력을 유지하는 미국, 캐나다 등의 농산물이 농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다수의 소농과 이들이 주축이된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보수성이 농촌의 자기 침몰을 압박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광범한 소농들은 상호대립경쟁 관계로서 적극적인 단합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의 현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다섯째, 현대자본주의의 발전 경향 자체가 이러한 소농의 존재를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의 탈피는 대농으로서의 자기발전 이외에 달리 길이 없다.

여섯째, 농업생산력과는 상관 없이 형성된 대도시의 거대한 소비문화는 건실한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는 관련이 먼 입장이다.

일곱째, 현재의 축산물의 주기적인 파동은 현재의 산업구조 속에서 소영세 축산업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덟째, 공산품과의 부등가 교환은 어차피 농업분야에서 생산된 잉여가치를 부단히 상업자본 쪽으로 전이시켜 갈 것이다.

#### 4. 농업 정체의 원인

오늘날 농업이 정체되는 원인은 개별농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의 문제이다. 우선 소농 그 자체로서는 농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보다는은 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영농규모의 대형화가 필요

한 것이다. 영농규모가 대형화되어야 농업의 기계화, 과학화, 분업화가 가능하고 거대한 자본이 드는 영농구조 개편이 가능한 것이다. 소농으로서는 농업에 대한 과학적 전문지식을 가지기 힘들며 설사 가지고 있다 하여도 한 해 벌어서 겨우 먹고 살기에 급급한 처지로서는 시설 개선이 불가능하며, 하여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또한 오랜 세월 가난과 자연 재해를 독자적 책임으로 견디어 나온 소농은 이웃에 대한 배타적 소유욕과 이기심으로 찌들어 있으며 무섭게 보수적이고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새로운 영농방법의 채용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소농의 대농으로의 변화가 어찌하여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기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지탱하는 것은 값싼 노동력이며 이 값싼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싼 농산물 가격의 유지가 필수 불가결한 기본 여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값싼 노동력의 공급원으로서 또한 주곡생산에 주력하는 잠재적 실업인구의 저장소로서의 농촌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립분산 정체소농은 현대사회에서 존립하기 위한 대규모 정치교섭력의 형성을 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으며 국가 내에서의 수적 우세에 비하여 그들의 실제적 영향력은 몹시도 미

미한 입장에 있다.

그러면 이러한 원인은 어디서부터 생성되어진 것이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농업이 이렇게 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역사적 모순의 축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 5. 한국농업의 진행과정

원래 이조시대의 토지제도는 토지구유제였으며 토지의 사적 소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조 봉건제도의 해체와 더불어 토지의 점유가 세습화 되어가고 자체의 자본주의화를 위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모순이 축적되어 갔다.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의 논리로서 토지의 농민적 소유와 새로운 사회 경제적 질서를 요구하면서 봉건적 질곡을 깨뜨리고 시민사회를 형성하고자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혁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은 일제의 군사적 탄압으로 실패하였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왜곡된 역사를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의 자생적 자본주의화의 길이 일제에 의해 거부된 후 자본주의의 싹은 잘리고 일제의 식민지적 프로그램 속에 편입되어 버린 것이다. 밀약에 의해 미국의 공식적 지지하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일제의 식민지적 초과 이윤의

확보를 위해 밑으로부터 일어나는 농민운동을 억압하고 봉건 지배층과 야합하여 반봉건적 경제체제로 재편성하여 농업에 있어 농민적 진화의 길을 봉쇄하고 지주적(地主的) 진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미명하에 진행된 토지조사 사업이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하여 농민으로부터 토지경작권을 점탈하여 지주의 소유권으로 이전하였으며 이 나라 농민을 전부 소작농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일제하의 치열했던 농민운동은 농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발버둥이었으나 조선은 일제의 식량창고로 바뀌었으며 농사지는 쌀은 빼앗기고 콩깨묵과 초근목피로 생명을 이어가는 시기의 연속이었다.

5·16 후에 새로운 농업발전을 위한 시도가 없지는 않았으나 공업화에 쫓겼고 또 급속한 공업화는, 내적 성장이 아닌 외부적 공업화의 결과로 농업은 상대적으로 점점 낙후되어 이제는 생산력 그 자체도 중요성의 비율이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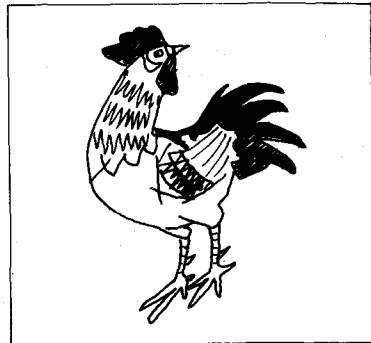
## 6. 앞으로의 전망

한국 경제는 중요한 계기에 들어서고 있다. 과거의 무분별한 성장이 가져다 준 폐해로부터 벗어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지나친 대외의존이 우리의 독자적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농업은 더구나 자신

의 존립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공업판도의 변화에 따라 부침하고 있다. 현재의 여건으로는 농업의 현저한 생산력의 발전과 보다 더 중요한 농민의 수익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가장 중요한 농촌 내부의 토지 소유 및 영농규모의 변화는 바라볼 수 없을 것이며 공업과의 직접적 연결 또한 어려울 것이다. 가까운 시일내에 농업의 모순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농업과 농촌은 앞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새로운 유전자 공학의 발전에 따라 농업의 생산력이 보다 증진된다 해도 외국과의 시차로 인한 피해는 적지 않을 것이며 예측적 지위를 극복하여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 7. 결론

농업이 국민경제 내부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은 생산력의 비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농축산업은 하루빨리 현재의 침체와 모순으로부터 벗어나 활기찬 발전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농업내부의 대정치·대도시자본의 교섭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자신의 이익의 보장을 위한 자율적 제도 마련이 급선무이며 그 이후는 가격이 정상화 될 것이고 농업은 이윤을 보장받는 산업이 될 것이며 소농의 정체가 아닌 기업농의 대두, 농업전문화의 시대로 바뀌어져 갈 것이다. 그리



고 농업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농지소유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이며 경영과 가계가 통합된 상황에서 분리시켜서 근대적인 자본주의적 경영개념으로 변화하여야 하고 또한 축산과 농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투자개념이 정립되어 투자에 대한 평균 이윤의 확보와 투하노동에 대한 임금의 확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한발과 수해의 대책으로서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국 농업문제는 농지소유의 문제인데 농지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지대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나 농산물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바로 이점이 한국농업 발전의 장애이므로 이에 대한 정치적 차원의 자기 결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간섭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외국 농축산물 수입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㉞